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12-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새해맞이와 2025년 계획

2025. 01. 08.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2025년에 대한 기대감

2025년 나의 삶은 2024년보다 나빠질 것 21%, 좋아질 것 42% 긍정적 기대감이 부정적 우려보다 높아

2025년 을사년 첫 번째 주말인 1월 3일 ~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예상과 개인적인 목표 등을 확인해 보았다.

10명 중 4명(42%)은 2025년 본인의 삶이 지난해(2024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훨씬 더 좋아질 것 7%, 좀 더 좋아질 것 34%). 반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21%이다(훨씬 더 나빠질 것 5%, 좀 더 나빠질 것 16%). [1년 전에 확인한 2024년에 대한 기대치](#)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기대감은 2%포인트가 줄었고, 부정적인 전망은 4%포인트 늘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2024년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는 평가(10점 만점에 6점 이상)를 한 사람이 47%로 불만족한다는 평가를 한 사람(25%)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다만 전년인 2023년보다는 좋지 않은 한 해였다는 평가(33%)가 좋았다는 평가(27%)보다 근소하게 높기도 했다. 만족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2024년을 뒤로 하고, 새해는 희망과 기대감을 품고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다.

2025년 나의 삶, 2024년보다 나빠질 것 21%, 좋아질 것 42%

(단위 : %)

2024년보다 나빠질 것: 21%

2024년보다 좋아질 것: 42%



질문: 2025년도 귀하의 삶은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25년 대한민국, 2024년보다 나빠질 것 59%, 좋아질 것 19% 10명 중 6명이 '2024년보다 더 나쁜 2025년이 될 것' 비관적 전망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과는 달리, 2025년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이다. 10명 중 6명(59%)이 2025년 대한민국은 2024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본다(훨씬 더 나빠질 것 19%, 좀 더 나빠질 것 41%). 2024년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19%(훨씬 더 좋아질 것 2%, 좀 더 좋아질 것 17%)로,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21%)과 비슷하다. 1년 전에 확인한 2024년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기대감은 6%포인트가 줄어든 반면 부정적인 전망은 13%포인트 늘었다.

우리나라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좋지 않았다는 평가(10점 만점에 4점 이하)를 한 사람이 68%였고, 2023년보다 더 좋지 않았다는 사람 또한 77%로 다수를 차지했다. 2024년 대한민국을 전반적으로 암울한 해로 평가한 데 이어, 2025년 전망 또한 어둡다.

2025년 대한민국, 2024년보다 나빠질 것 59%, 좋아질 것 19%

(단위 : %)

2024년보다 나빠질 것: 59%

2024년보다 좋아질 것: 19%



질문: 2025년도의 대한민국은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연령대 낮을수록, 가구소득 높을수록 '나의 삶은 2024년보다 더 좋아질 것'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3명 중 2명이 '우리나라는 2024년보다 더 나빠질 것'

연령대가 낮을수록 2025년 내 삶이 2024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다. 이는 지난해에도 확인된 결과이다. 18~29세는 57%가, 30대와 40대는 각각 49%가 2025년이 더 좋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기대감도 높아지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중에서는 32%가, 600만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는 55%가 2024년보다 더 나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세대, 계층, 직업,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과반을 차지한다. 2025년 대한민국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정서를 대다수 국민이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60대(66%)와 70세 이상(68%), 자영업자(66%)는 3명 중 2명 이상이 우리나라의 2025년을 지난해보다도 더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연령대 낮을수록, 가구소득 높을수록 ‘나의 삶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 긍정적인 기대감 높아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세대와 계층 등 관계없이 부정적인 전망이 과반**

(단위 : %)

사례수 (명)	2025년 나의 삶은…			2025년 대한민국은…		
	2024년보다 나빠질 것	2024년과 비슷할 것	2024년보다 좋아질 것	2024년보다 나빠질 것	2024년과 비슷할 것	2024년보다 좋아질 것
전체	(1,000)	21	37	42	59	21
성별						
남자	(493)	23	37	40	59	22
여자	(507)	19	38	44	60	21
연령						
18~29세	(157)	9	34	57	52	33
30대	(149)	15	36	49	57	22
40대	(176)	15	36	49	55	21
50대	(195)	28	31	41	60	17
60대	(175)	26	42	32	66	19
70세 이상	(148)	30	48	22	68	17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40)	15	37	47	54	2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37)	25	29	46	63	21
자영업자	(150)	26	34	40	66	19
비경제활동	(372)	22	42	36	61	2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22)	29	39	32	58	20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381)	19	41	40	62	21
600만원 이상	(297)	14	31	55	57	22
주관적 계층인식						
중상층	(367)	14	37	49	53	26
하층	(607)	26	37	37	64	18
이념성향						
진보층	(240)	24	32	44	56	15
중도층	(378)	21	40	39	60	26
보수층	(340)	20	38	42	62	20

질문: 2025년도 귀하의 삶은 / 2025년도의 대한민국은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2025년 개인 목표,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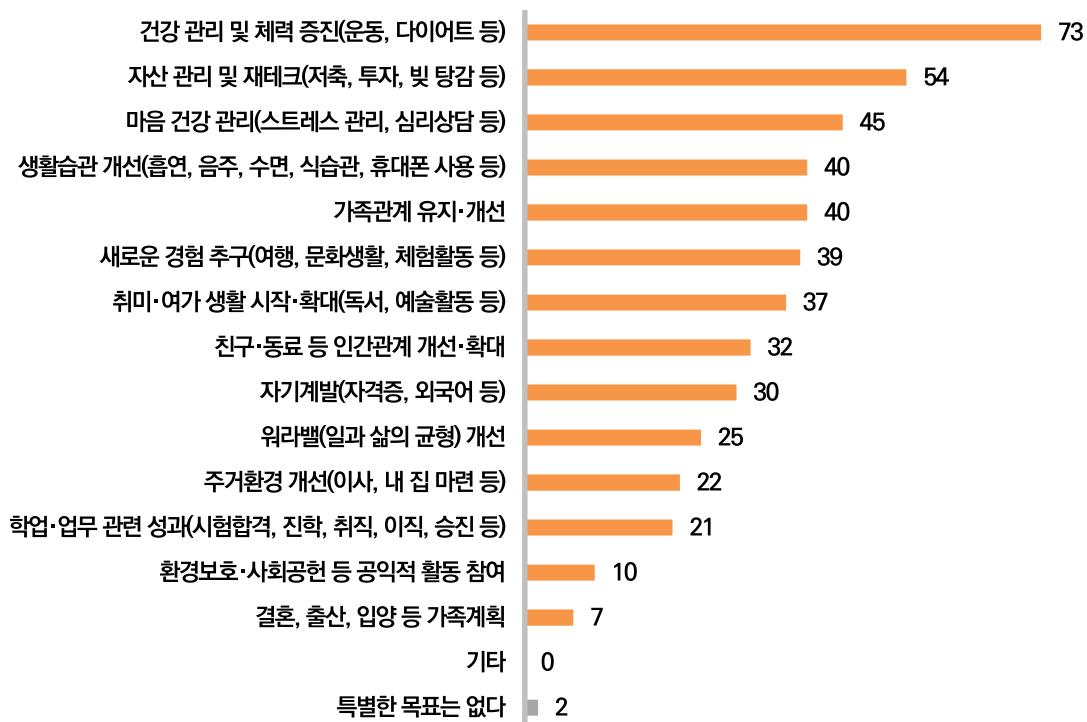
2025년 개인 목표, 건강 관리·체력 증진, 자산관리·재테크, 마음 건강 관리 등의 순

2025년 사람들이 세운 개인적인 목표로는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 건강 관리·체력 증진(73%)', '저축, 투자, 빚 탕감 등 자산 관리와 재테크(54%)',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상담 등 마음 건강 관리(45%)'를 언급한 사람이 많다.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변함없이 우리 국민의 최우선 목표인 셈이다.

그 뒤로 '흡연, 음주, 수면, 식습관, 휴대폰 사용 등 생활습관 개선(40%)', '가족관계 유지·개선(40%)', '여행, 문화생활, 체험활동 등 새로운 경험 추구(39%)', '독서, 예술활동 등 취미와 여가생활 시작·확대(37%)', '친구·동료 등과의 인간관계 개선·확대(32%)', '자격증과 외국어 등 자기계발(30%)' 등이 2025년 한 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개인적인 목표로 언급되었다.

2025년 개인 목표, 건강 관리·체력 증진, 자산관리·재테크, 마음 건강 관리 등의 순

(단위 : %)



질문: 2025년 한 해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6

건강 관리·체력 증진은 남녀, 세대 불문 주요 목표

50대 이하는 자산관리 및 재테크도 주요 목표 중 하나,

60세 이상부터는 마음 건강 관리와 가족관계 유지·개선이 더 중요한 목표

건강 관리·체력 증진은 남녀 모두, 그리고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한 해 목표 중 하나이다. 50대 이하에서는 자산 관리 및 재테크가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목표이지만, 60세 이상부터는 마음 건강 관리와 가족관계 유지·개선, 새로운 경험 추구 등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목표가 물질적 목표를 대체한다. 또한 18~29세에서는 자기계발(58%)과 학업·업무 관련 성과(55%)를 한 해 목표로 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고, 70세 이상에서는 42%가 인간관계 개선·확대를 주요 목표로 삼는다.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 목표도 확인되는데, 남성은 건강과 자산 관리 다음으로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42%)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띄고, 여성은 남성과 달리 취미·여가 생활 시작·확대(39%)가 주요 목표 4순위로 자리잡았다.

건강관리·체력증진은 전 세대의 주요 목표이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8명이 한 해 목표로 잡아

18~29세는 자기계발과 학업·업무성과, 3·40대는 자산관리·재테크,

70세 이상은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 개선도 을 한해 주요 목표 중 하나

(단위 : %)

사례수 (명)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	자산 관리 및 재테크	마음 건강 관리	생활 습관 개선	가족 관계 유지·개선	새로운 힘주기	취미·동료 ·여가 활동	인간 관계 시작·확대	자기 계발	밸 개선	워라밸	주거 환경 개선	학업 ·업무 관련 성과	사회 ·····	환경 보호·출산, 공헌 등	특별한 목표 없다
전체	(1,000)	73	54	45	40	40	39	37	32	30	25	22	21	10	7	0	2
성별																	
남자	(493)	68	55	41	41	42	40	36	36	30	29	23	22	10	7	0	2
여자	(507)	77	53	49	39	37	38	39	28	30	22	22	20	10	6	1	1
연령																	
18~29세	(157)	58	59	36	33	22	39	44	34	58	23	20	55	6	10	1	1
30대	(149)	65	62	41	45	35	41	42	24	39	34	30	37	9	21	1	0
40대	(176)	68	63	46	46	37	29	34	23	28	26	25	20	7	3	1	1
50대	(195)	77	62	46	42	47	41	35	34	27	25	25	12	10	3	0	3
60대	(175)	85	45	53	43	45	47	33	37	16	26	19	4	15	2	0	1
70세 이상	(148)	81	29	48	29	51	37	38	42	14	17	13	1	16	1	0	5
2025년 삶 전망																	
더 좋아질 것	(417)	76	63	48	46	43	41	44	37	39	29	26	30	12	10	0	0
비슷할 것	(374)	73	46	41	35	36	37	33	30	23	22	18	17	10	5	0	2
더 나빠질 것	(209)	65	49	48	37	40	38	31	26	24	25	22	10	8	3	0	4

질문: 2025년 한 해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6

남성은 가족관계 유지·개선(42%), 여성은 취미·여가생활 시작·확대(39%)가 다른 성별과 구분되는 차이
자산관리 및 재테크는 50대까지는 최소 2순위 내 드는 주요 목표,
60세 이상부터는 마음 건강 관리와 가족관계 유지·개선 등 질적 목표가 대체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1,000)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73%)	자산 관리 및 재테크(54%)	마음 건강 관리(45%)	생활습관 개선(40%)	가족관계 유지·개선(40%)
성별	남자 (493)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68%)	자산 관리 및 재테크(55%)	가족관계 유지·개선(42%)	마음 건강 관리(41%)	생활습관 개선(41%)
	여자 (507)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77%)	자산 관리 및 재테크(53%)	마음 건강 관리(49%)	취미·여가 생활 시작·확대(39%)	생활습관 개선(39%)
연령						
18~29세 (157)	자산 관리 및 재테크(59%)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58%)	자기계발(58%)	학업·업무 관련 성과(55%)	취미·여가 생활 시작·확대(44%)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65%)	자산 관리 및 재테크(62%)	생활습관 개선(45%)	취미·여가 생활 시작·확대(42%)	새로운 경험 추구(41%)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68%)	자산 관리 및 재테크(63%)	생활습관 개선(46%)	마음 건강 관리(46%)	가족관계 유지·개선(37%)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77%)	자산 관리 및 재테크(62%)	가족관계 유지·개선(47%)	마음 건강 관리(46%)	생활습관 개선(42%)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85%)	마음 건강 관리(53%)	새로운 경험 추구(47%)	가족관계 유지·개선(45%)	자산 관리 및 재테크(45%)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81%)	가족관계 유지·개선(51%)	마음 건강 관리(48%)	친구·동료 등 인간 관계 개선·확대(42%)	취미·여가 생활 시작·확대(38%)	

질문: 2025년 한 해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성별, 연령별 상위 5순위까지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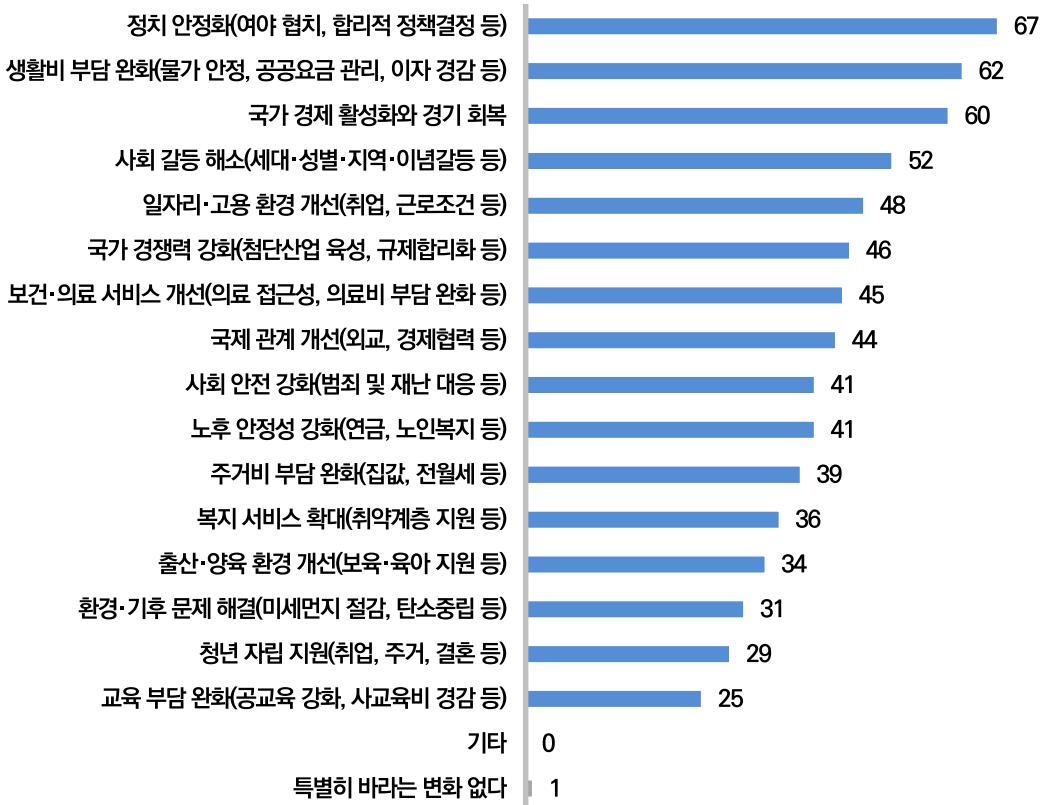
2025년 대한민국에 바라는 점, 정치 안정화와 생활비 부담 완화, 국가경제 활성화 등

2025년 우리나라가 이루었으면 하는 변화로는 ‘여야 협치와 합리적 정책결정 등 정치 안정화’가 67%로 가장 많다. 연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이어 탄핵되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어서 ‘물가 안정, 공공요금 관리, 이자 경감 등 생활비 부담 완화(62%)’와 ‘국가 경제 활성화와 경기 회복(60%)’이 언급되었다. 즉, 정치 안정과 경제 안정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2025년 국가 과제인 것이다.

이어서 ‘세대·성별·지역·이념 등 사회 갈등 해소(52%)’, ‘취업, 근로조건 등 일자리·고용 환경 개선(48%)’, ‘첨단산업 육성, 규제합리화 등 국가 경쟁력 강화(46%)’, ‘의료 접근성,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45%)’, ‘외교, 경제협력 등 국제 관계 개선(44%)’ 등도 다수가 2025년 대한민국에 바라는 점으로 언급했다.

2025년 대한민국에 바라는 점, 정치 안정화와 생활비 부담 완화, 국가경제 활성화 등

(단위 : %)



질문: 2025년 한 해 우리나라가 이루었으면 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60대 이상, 진보층 10명 중 7명 이상이 2025년 대한민국에 ‘정치 안정화’ 필요하다고 인식
18~29세는 ‘일자리·고용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70세 이상은 ‘사회갈등 해소’, ‘국제관계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이뤄야한다는 인식 다수

올 한 해 우리나라에 ‘정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세대와 성별,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최소 50% 이상이다. 특히 60대(79%)와 70세 이상(79%)에서 높고, 진보층(75%)도 4명 중 3명이 정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8~29세는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59%로 세대 중 유일하게 절반을 넘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30~50대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주문하는 의견도 각각 50%, 47%, 54%로 높다. 또한 60대에서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노후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5%로 5순위를 차지했고, 70세 이상에서는 정치 안정화와 함께 사회 갈등 해소(62%), 국제 관계 개선(60%), 국가 경쟁력 강화(59%) 등도 우리나라에 바라는 변화로 언급되었다.

60대 이상, 진보층에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2025년 대한민국에 '정치 안정화' 필요하다고 인식

18~29세는 '일자리·고용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70세 이상은 '국제관계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 다수

(단위 : %)

사례수 (명)	특별 히 바라 는 변화 없다																			
	정치 안정 화	생활 비 부담 완화	경제 활성 화와 경기 회복	국가 사회 갈등	일자 리· 고용 환경 개선	국가 경쟁 력 강화	보건 의료 환경 개선	국제 사회 관계 개선	노후 안전 강화	주거 성 강화	복지 부담 완화	출산 부담 증가	환경 환경 문제 해결	청년 환경 문제 개선	교육 자립 지원	부담 완화	기후 환경 문제 개선	청년 부담 완화	교육 기후 환경 문제 개선	기후 환경 문제 개선
전체 (1,000)	67	62	60	52	48	46	45	44	41	41	39	36	34	31	29	25	0	1		
성별																				
남자 (493)	68	60	60	56	47	49	42	45	39	42	40	37	40	27	28	24	0	1		
여자 (507)	66	65	59	48	48	42	48	44	44	40	38	34	28	35	29	26	0	0		
연령																				
18~29세 (157)	59	57	52	55	56	45	31	41	38	25	59	28	37	24	47	23	0	1		
30대 (149)	50	60	53	45	49	47	50	39	36	28	48	28	45	28	34	22	1	0		
40대 (176)	58	70	61	42	45	38	47	38	40	32	41	40	28	25	17	35	1	1		
50대 (195)	74	69	67	52	52	46	54	43	45	49	35	34	25	27	28	25	0	1		
60대 (175)	79	59	59	57	44	41	44	47	44	55	30	41	30	39	24	15	0	0		
70세 이상 (148)	79	56	66	62	39	59	44	60	44	55	24	42	42	44	26	28	0	1		
주관적 이념성향																				
진보층 (240)	75	65	63	60	53	47	52	44	43	48	44	45	36	36	27	28	0	0		
중도층 (378)	61	65	58	44	48	40	42	42	40	40	34	32	29	30	23	0	1			
보수층 (340)	69	58	63	56	44	52	44	49	43	39	33	31	34	30	29	24	0	1		
2025년 우리나라 전망																				
더 좋아질 것 (192)	74	66	64	62	55	54	52	52	50	43	45	46	42	36	37	28	1	1		
비슷할 것 (214)	62	60	50	46	50	34	44	35	36	35	40	30	31	27	22	21	0	1		
더 나빠질 것 (595)	67	62	62	51	45	47	43	45	40	43	37	35	32	31	29	25	0	0		

질문: 2025년 한 해 우리나라가 이루었으면 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정치 안정화는 세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2025년 우리나라에 바라는 변화로 언급
18~29세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30~50대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도 주요 변화 기대 사항**

사례수 (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1,000)	정치 안정화 (67%)	생활비 부담 완화 (62%)	국가 경제 활성화 와 경기 회복(60%)	사회 갈등 해소 (52%)	일자리·고용 환경 개선(48%)
성별					
남자 (493)	정치 안정화 (68%)	국가 경제 활성화 와 경기 회복(60%)	생활비 부담 완화 (60%)	사회 갈등 해소 (56%)	국가 경쟁력 강화 (49%)
여자 (507)	정치 안정화 (66%)	생활비 부담 완화 (65%)	국가 경제 활성화 와 경기 회복(59%)	일자리·고용 환경 개선(48%)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48%)
연령					
18~29세 (157)	정치 안정화 (59%)	주거비 부담 완화 (59%)	생활비 부담 완화 (57%)	일자리·고용 환경 개선(56%)	사회 갈등 해소 (55%)
30대 (149)	생활비 부담 완화 (60%)	국가 경제 활성화 와 경기 회복(53%)	정치 안정화 (50%)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50%)	일자리·고용 환경 개선(49%)
40대 (176)	생활비 부담 완화 (70%)	국가 경제 활성화 와 경기 회복(61%)	정치 안정화 (58%)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47%)	일자리·고용 환경 개선(45%)
50대 (195)	정치 안정화 (74%)	생활비 부담 완화 (69%)	국가 경제 활성화 와 경기 회복(67%)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54%)	일자리·고용 환경 개선(52%)
60대 (175)	정치 안정화 (79%)	국가 경제 활성화 와 경기 회복(59%)	생활비 부담 완화 (59%)	사회 갈등 해소 (57%)	노후 안정성 강화 (55%)
70세 이상 (148)	정치 안정화 (79%)	국가 경제 활성화 와 경기 회복(66%)	사회 갈등 해소 (62%)	국제 관계 개선 (60%)	국가 경쟁력 강화 (59%)
주관적 이념성향					
진보층 (240)	정치 안정화 (75%)	생활비 부담 완화 (65%)	국가 경제 활성화 와 경기 회복(63%)	사회 갈등 해소 (60%)	일자리·고용 환경 개선(53%)
중도층 (378)	생활비 부담 완화 (65%)	정치 안정화 (61%)	국가 경제 활성화 와 경기 회복(58%)	일자리·고용 환경 개선(48%)	사회 갈등 해소 (44%)
보수층 (340)	정치 안정화 (69%)	국가 경제 활성화 와 경기 회복(63%)	생활비 부담 완화 (58%)	사회 갈등 해소 (56%)	국가 경쟁력 강화 (52%)

질문: 2025년 한 해 우리나라가 이루었으면 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성별, 연령별, 이념성향별 5순위까지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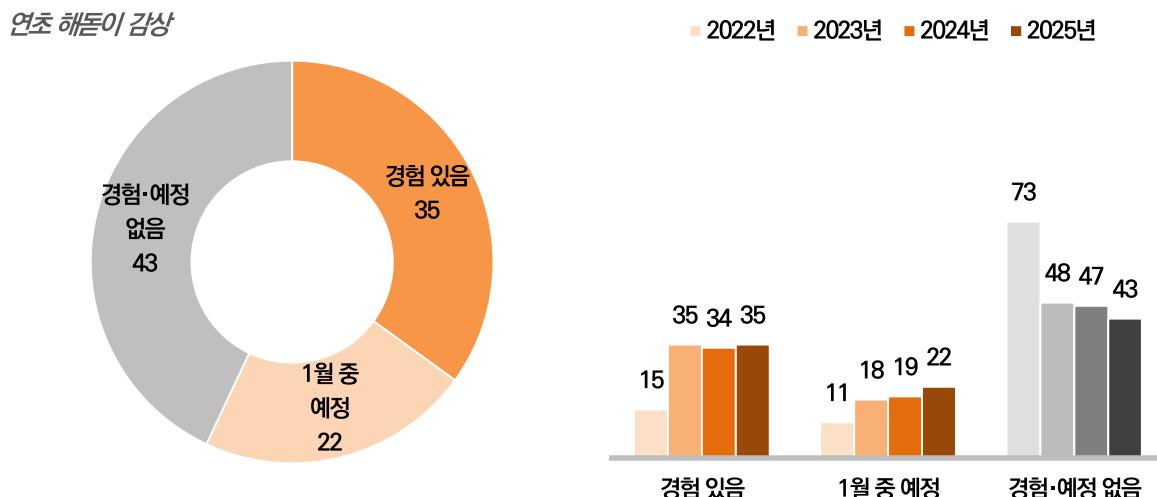
3 신년 맞이

연초 해돋이 경험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 57%, 1년 전보다 4%포인트 증가

2025년 초 해돋이를 봤다는 사람은 35%, 아직 없지만 1월 중 예정이 있는 사람은 22%로, 모두 더하면 57%가 연초 해돋이를 봤거나,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1년 전(53%)과 비교하면 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난 2023년 이후, 연초 해돋이를 감상했거나 감상할 예정인 사람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연초 해돋이 경험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 57%, 1년 전보다 4%포인트 증가

(단위 : %)



질문: 연초에 다음 각각을 한 경험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 연초 해돋이 감상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 7 ~ 10 // 2023. 1. 13 ~ 16 // 2024. 1. 5 ~ 8 // 2025. 1. 3 ~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 및 덕담 전했다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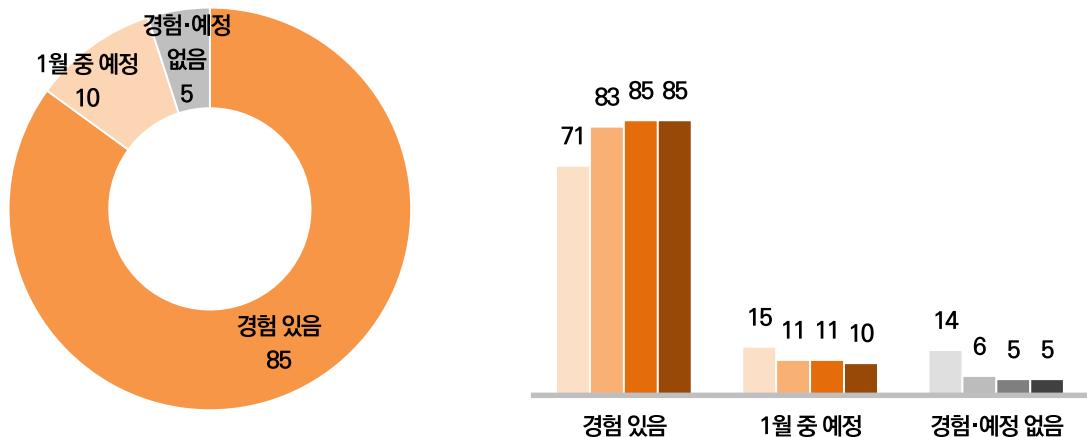
10명 중 8~9명(85%)는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 및 덕담을 전했다고 답했다. 1월 중 예정하는 사람(10%)을 포함하면, 대다수가 주변 사람에게 새해 인사 및 덕담을 전한 셈이다. 아직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전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사람은 5%에 그친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해 인사 및 덕담 전했다 85%, 지난해와 동일

(단위 : %)

주변 사람들에게 사해 인사 및 덕담 전하기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질문: 연초에 다음 각각을 한 경험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 주변 사람들에게 사해 인사 및 덕담 전하기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 7 ~ 10 // 2023. 1. 13 ~ 16 // 2024. 1. 5 ~ 8 // 2025. 1. 3 ~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가족, 친척과 신년 모임이나 외식 가졌거나 1월 중 예정한다 86%, 1년 전과 비슷 지인과 신년 모임·외식 가졌거나 1월 중 한다 82%, 1년 전보다 4%포인트 감소

가족 및 친척과 모임이나 외식, 파티 등 신년회를 가졌다는 사람은 전체의 57%이다. 아직 하지 않았지만, 1월 중 계획을 하는 사람(29%)까지 포함하면, 1월 내 가족 및 친척과 신년 모임을 가지는 사람은 86%이다. 1년 전(87%)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3년 이후 가족 및 친척과 신년 모임을 가졌거나 예정하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80% 중반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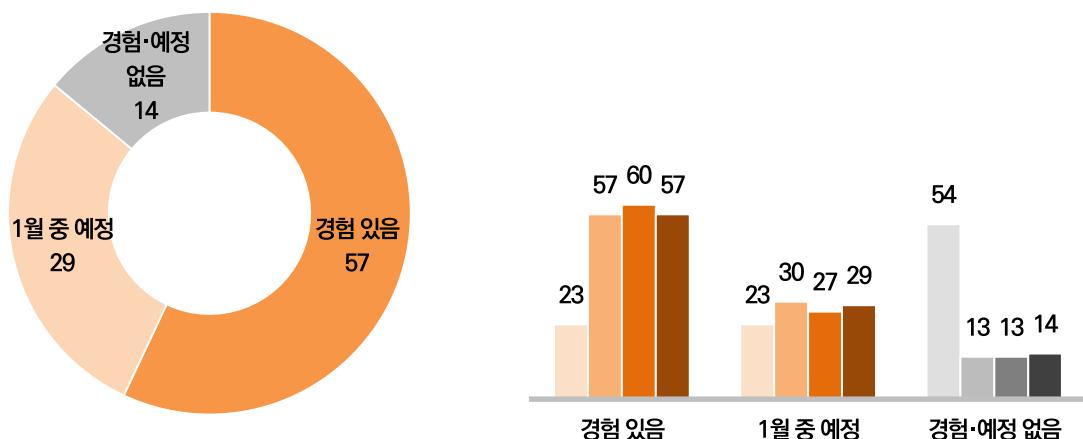
친구나 지인, 회사동료 등과 신년 모임을 가진 사람은 51%이고, 아직 갖지 않았지만 1월 중 예정하는 사람은 31%이다. 10명 중 8명(82%)이 1월 중 주변 사람들과 신년회를 가지는데, 1년 전(86%)과 비교하면 4%포인트 감소하였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2년에는 지인과 신년 모임을 가지는 사람이 10명 중 4명(41%)에 그쳤지만, 2023년부터는 꾸준히 80% 초중반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 친척과 신년 모임이나 와식 가졌거나 1월 중 예정한다 86%, 1년 전과 비슷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신년 모임·와식 가졌거나 1월 중 한다 82%, 1년 전보다 4%포인트 감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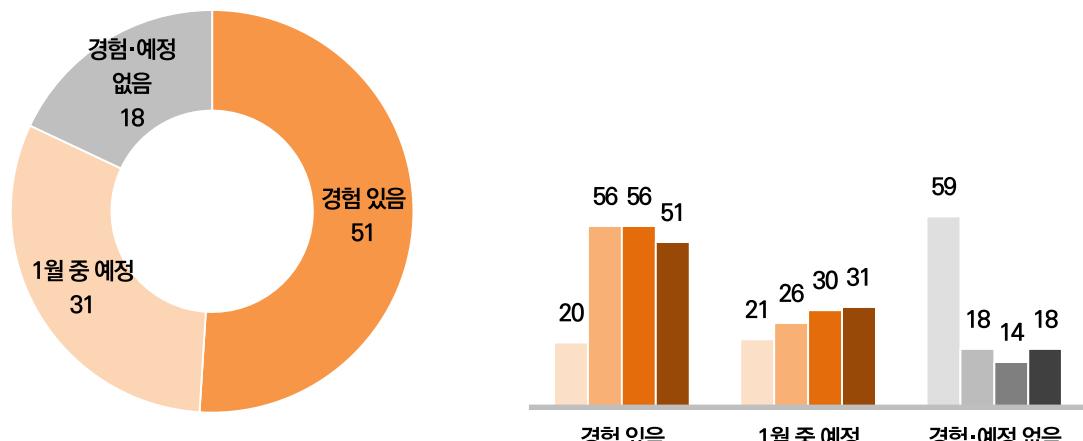
가족, 친척과 신년회(모임, 와식, 파티 등)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신년회(모임, 회식, 와식, 파티 등)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질문: 연초에 다음 각각을 한 경험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 가족, 친척과 신년회(모임, 와식, 파티 등) //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신년회(모임, 회식, 와식, 파티 등)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 7 ~ 10 // 2023. 1. 13 ~ 16 // 2024. 1. 5 ~ 8 // 2025. 1. 3 ~ 6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24년 11월 기준 약 95만여 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42,732명, 조사참여 1,89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3%, 참여대비 52.8%)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1월 3일 ~ 1월 6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 Research

